

'농지원부 일제정비' 총력

전북도, 농지원부 현행화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농업정책 활용도 제고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년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전수 확인 및 점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2021년 배정된 사업량(농지소유권변동, 경작확인대상, 입차기간 민료농지, 농기주 사망발소자,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면적 미달사항 등)을 연말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2021년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71만1,727필지와 2020년 잔여물량 1만1,691필지를 포함한 총 72만3,418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경작구분(자경/임대), 주재배작물 등)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토지대장상 지적면적, 공익직불제 신청 현황 등)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하는 정보의 경우 현장확인 등을 거친다.

확인 과정 중 필요시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활용 안내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부 정비 주체가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됐다.

전북도는 정비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정비물량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해 '2021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시·군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된 정비 물량으로 인해 조기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까지 14개 시·군별 업무보조원 채용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시·군 담당자 및 보조원 직무교육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준비율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정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지 공적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지 일부 현행화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농업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공공기관 마스크 공동구매 상담회' 개최

도·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판로 확대 위해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기관 마스크 공동구매 상담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조성완 한국전

기안공사 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참석해 공공기관의 마스크 공동구매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7개 마스크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KF94인증 마스크와 KF-AD텐

탈마스크 등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업체별로 발주 품목과 수요 물품에 대해 소개하고, 판매업체와 구매기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 방송(LBS)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여기관이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행사촬영 영상을 편집해 각 기관과 업체의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 판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마스크 공공구매 상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와 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와 판로 확대를 위한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구매 지원단 활동도 10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전북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인식개선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되면 대규모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으로, 공공구매 상담회 및 지원단 활동에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063-711-2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기관 마스크 공동구매 상담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전북도, 지속 가능 곤충산업 발전 위해 적극 지원

곤충산업화·유용곤충 사육·가공·유통시설 지원 등 3개 분야 19억원 투입

전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도는 곤충산업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곤충산업화 지원 ▲유용곤충 사육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 3개 분야에 19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우선, 도는 농식품부로부터 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안전한 곤충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곤충산업화지원'에 나서 장수군에 곤충 먹이로 사용되고 있는 발효분말의 제조 및 보관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료 단계에서부터 중금속 기준 등 식품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먹이용 사료를 생산·공급해 곤충사육의 고품질화·균일화를 도모한다.

또한, 유용곤충 사육지원을 통해 신규 곤충 농가를 육성하고,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해 생산비 절감하는 등 곤충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HACCP 기준 충족 가공 시설 구축을 통한 가공·유통 분야 육성을 위해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구축을 지원, 안전하고 깨끗한 곤충산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익산시에 가공·유통시설이 구축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순창군에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곤충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곤충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곤충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가축분뇨 관리 강화·불법행위 사전 차단

전북도가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한다.

도와 시군, 환경청 3개 기관은 대규모, 상습민원 유발, 하천 인접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분기별 합동점검과 특별점검(잠마철 등 취약시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유출, 무단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해 명절 연휴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농가·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가축분뇨 관리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253대)을 실시간 추적 관리하고, 환경지킴이 등 상시 순찰체계를 유지해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종 점검, 교육,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전북도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농업인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원 시책 확대

전북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단가 인상 등 추진

전북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고령화와 오랜 농사일로 손발 저림, 허리통증, 어깨결림 등 농부증을 앓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도내 1,880개 마을에 인마의자, 할합계 등 건강의료 보조기구를 지원한 헬스케어 사업은 만족도 조사 결과 87%의 농업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는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지역 2,330개 마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건강관리 보조기구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나 질병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단가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농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위해 3개 사업 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 업종을 전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고령 여성농업인 등이 카드 발급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까운 면 소재지 지역농협을 포함해 218개소까지 발급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가사와 영농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식자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사업량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공동급식 여건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및 인근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기종에 사용이 편리한 충전식 예초기를 추가로 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의 출산, 질병,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 우미 등 5개 사업(출산여성농가도 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 이동식놀이교실 지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로 미래 농업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농촌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원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모교의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가린, 단재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리어케어' "나의 새은 만남"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